

광주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 파행

시의회 상정 못하고 19일로 연기 21일까지 못하면 선관위가 획정 입지자들 선거 운동 일정 차질

광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광주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광주시의회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광주지역 기초의원 선거구를 규칙으로 획정하는 초유의 사태도 우려되고, 각 정당들도 예비후보 심사 일정이 늦춰지는 등 선거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1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선거구 획정 개정 조례안을 논의했으나 구의원 정수 조정에 정의당과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시의원 간 지역별·정당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의원들은 수정안을 마련한 뒤 개별안건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려고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9일로 본회의를 연기했다. 구의원 선거구 획정 의결사항은

오는 21일까지이며, 시의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를 획정한다.

광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논란의 쟁점은 인구와 동 수 비율을 5대 5 기준으로 해 2인 선거구를 줄이고 3~4인 선거구를 늘리는 것이다. 광주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동구의원 수를 기존 7명에서 6명으로 줄이고 광산 5선거구(3명)를 신설했다. 또 북구는 현행 18명을 유지하지만 1·2·3 선거구는 8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4·5·6 선거구는 10명에서 9명으로 줄였다.

하지만 시의회 논의 과정에서 동구의원 숫자를 줄이는 데 반대 의견이 나오고, 3인 선거구를 현행 2인 선거구로 다시 나누자는 수정의견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북구는 구의원 숫자가 줄어드는 선거구에서 반발했고, 광산 5선거구도 시의원들이 2인 선거구로 축소하려고 하면서 거부 의견에 부딪혔다. 시의회는 3~4인 선거구 축소를 반대하는 정의당과 민주당이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자 결국 본회의를 연기했다. 시의회 관계

자는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의견이 다양해서 둘러 의결을 강행하기보다는 좀 더 논의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의회의 구의원 선거구 획정안 의결이 늦어짐에 따라 출마 예정자 선거운동 일정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한 정당 관계자는 “후보 검증 등 모든 선거 준비 절차가 1주일가량 늦어지고 있다”면서 “이미 예비후보에 등록한 출마예정자의 경우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선거구가 달라질 수 있어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광주시의회가 오는 21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광주지역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게 된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1일 이후에도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으면 선관위에서 획정위원을 토대로 광주시, 의회, 정당 등의 의견을 받아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의당 광주시당과 대구시당은 18일 공동 성명을 내고 “광주와 대구시의회는 민주주의의 쪼개기를 당장 멈추고 3~4인 선거구를 원안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빈혈검사 받는 유아들. 지난 16일 광주시 북구보건소를 찾은 72개월 미만 유아들이 빈혈 검사를 받고 있다. 북구보건소는 임신부와 유아들을 대상으로 빈혈검사와 신체계측 등 영양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 북구청 제공>

충남·경기 AI 확산... 이동 일시중지 전국 확대

최근 경기 평택, 충남 아산 등지에서 잇따라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닭·오리 등 가금류 이동이 일시중지됐다. 이동제한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 단위로, 19일 오후 7시까지이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이동제한을 해제한 전남지역도 나흘만에 다시 일시 이동중지조치가 내려졌다. 전남도는 철새가 북상함에 따라 충남·경기 등지에서 AI항원이 검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경제지역 도로의 방역을 강화하고, 특별방역기간인 5월말까지 도, 시·군, 동물위생시험소 등과

함께 방역에 힘쓰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AI 상황 점검·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6일 선제 조치한 3km 이내 예방적 살처분, 이동제한, 역학조사, 일제소독 등 조동방역상황과 17일 오후 7시부터 시행한 전국 단위의 일시 이동중지명령(19일 오후 7시까지, 제주 제외)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방선거 승리 최선”

이재호 민주 도당위원장 복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으로 복귀한 이재호 의원은 18일 “6·1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전남도당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전남 발전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방선거 승리가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중앙당에 전남도민과 당원의 뜻을 충분히 전하고 관찰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6·13 선거 현장

구청장·시장·군수 후보

김병내 “청년창업 지원 센터 만들것”



김병내 더불어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18일 “청년창업 등 창업에 나서는 이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누구나 창업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그동안 교육과 멘토링, 시장 정보 및 투자 등의 어려움으로 실패를 거듭한 창업자들에게 성공의 희망을 안겨주고 창업을 꿈꾸는 이들의 도전을 이끄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퇴직예정자와 전직자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주·야간 창업 준비 상담프로그램도 구성 중이다”고 설명했다.

조오섭 수영선수권대회 관계자 간담회



광주 북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회 대표는 최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했다.

지난 16일 진행된 간담회는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제안하기 위해 조오섭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조 대표의원은 “평화올림픽으로 성대히 개최되었던 평창올림픽의 결실이 2019년 광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남북화해와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정상회담 준비단계에서부터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참여가 논의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상필 마을 교육공동체 건설 제시



광주 북구청장 선거에 도전하는 문상필 광주시의원은 “교육은 학교와 교육청에서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마을 교육공동체 건설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지난 17일 장흥 장평초등학교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자랑스런 동문상을 수상한 뒤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작은 시골학교가 10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된 것은 우리 교육의 뿌리가 그만큼 깊어졌다는 것”이라며 “요즘 교육은 학교 공교육과 학원의 사교육 두 가지 형태로 변했는데, 이제는 마을도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동네에서 방과후 학교라도 책임질 수 있는 마을 교육공동체를 건설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김삼호 “화합·상생의 선거운동 펼 것”



김삼호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18일 “정당과 정파를 초월한 화합과 상생의 선거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6월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모든 후보는 민주정부 3기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명감을 갖고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본선이 치러지기 전에 많은 갈등이 표출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선거는 축제의 장이다. 개인 의사와 입장을 비난하거나 외면하기보다, 한 뿌리였던 만큼 선의의 경쟁을 하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면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결과에 승복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단결하는 선거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임한필 “하남산단 공장 문화거리 조성”



임한필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30년이 넘는 하남산단 등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젊은 공장’을 우리 삶과 근대화의 교육의 장으로 살리는 새로운 발상의 공장문화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임 예비후보는 “광산구는 광주 전체 산업단지 중 80%가 임지 해 있는 산업 및 경제 기능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조성된지 35년이 되는 하남산단은 2011년 한해 생산실적이 15조원이 넘었지만 지금은 지역경제 침체로 10조원대로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충훈, 민주당 중앙당 적격심사 통과



조충훈 전남 순천시장이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조 시장은 이로써 당 예비후보로 인정받게 되면서 6·13 지방선거 순천시장 3선에 도전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지난 7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등 6·13지방선거 예비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141명의 신청자 가운데 121명에게 적격 판정했다. 이 가운데 조 시장 등 12명의 신청자는 보류 결정을 내려 중앙당의 정밀심사를 거치도록 했었다.

광주·전남 시도의원 후보

이경호 민주 시장 청년위원장 시의원 출마



이경호(46)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청년위원장이 17일 광주시의원(북구 제2선거구, 문흥·오치·우산)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새로운 행정과 새로운 경제로 광주를 선도하는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직접 민주주의를 동네에서 시작하겠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는 “북구에서 20년을 살면서 주민자치위원, 생활안전협의회 의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 공익활동을 통해 주민들과의 쌓아온 소통이 큰 재산”이라며 “주민들간 시비가 잦은 주차·주차·충간 소음·쓰레기 문제 등을 공동체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영수 민주 도당 체육위원장 도의원 출마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체육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차영수(55) 한국대학 역도연맹 회장인 차영수(55) 한국대학 역도연맹 회장이 지난 17일 전남도의원(강진군 제1선거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차 회장은 이날 강진을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개소식과 함께 공식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재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을 비롯한 당직자들과 김봉연·김종모 등 전 프로야구 스타, 김주성 대한축구협회 사무총장 등 국내 유명 체육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업이 살아나고 지역민이 꿈을 펼치는 새로운 강진, 살아있는 강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광복기자 kroh@·순천=김은총기자 ejkim@kwangju.co.kr

새로운 세계를 보다

신세계안과

밝은광주안과가 ● 신세계안과로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8인의 안과전문의(현 의료진 그대로)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에너지관리공단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농협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만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물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